

# 자체 브랜드

## 회사 소개

소노마와인컴퍼니의 자체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에서 고객의 규모와 관계 없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유연하게 충족시켜 드리는 완제품 와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당사는 국내 및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당사는 소노마 카운티의 최대 도급 병입 업체로서,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전역의 와인 생산 업체들과 손잡고 크러시, 발효, 배럴 숙성, 병입, 창고 보관 등 와인 생산 전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크러시-병입 도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당사는 매년 7,500 톤이 넘는 포도를 크러시하고, 약 4백만 개 케이스 규모를 병입하며, 65,000 배럴의 와인을 배럴 내 발효하여 다양한 고객에게 공급합니다. 특히 당사는 업계 최고의 환경 친화적인 와인 생산 기법을 자랑합니다.

소노마 카운티 내에서 총 5개의 최신 시설을 운영 중이며(현재 1개 시설은 나파 카운티에 소재),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습니다. 뛰어난 고객서비스와 최첨단 크러시 설비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, 2백만 갤런 용량의 스테인리스 통, 총 6개의 최신 병입 라인을 갖춘 당사는 고객의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비와 숙련된 인력을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와인 생산은 당사에게 맡겨 주시고 이제 고객께서는 유통 관리, 고객층 확대, 브랜드 강화에 주력하시면 됩니다.

소노마와인컴퍼니는 자체 브랜드에서 대량 도급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와인 프로그램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당사의 비즈니스를 맞춤형으로 운영합니다. 고객의 와인 생산량이 500개 케이스이든 50만개 케이스이든 관계 없이, 당사는 고객의 브랜드 성장과 함께 합니다.

소노마와인컴퍼니의 주 설비 시설 및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내 산타 로사(Santa Rosa)에서 서쪽 5마일 지점에 있는 그레이턴(Graton)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레이턴 소재 시설은 1947년에 홀버그 사과 농장(Hallberg Apple Ranch) 내 사과 식품 공장으로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. 1960년대에 들어 샤토 세인트진(Chateau St. Jean)이란 이름의 와인 생산 설비로 전환했으며, 이후 도급 와인 설비인 어소시에이티드 빈터스 그룹(Associated Vinters Group)으로 다시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.

2000년에는 블랙스톤 멜로 브랜드(Blackstone Merlot brand)의 창시자이자 소유주이며 현재 코데라 와인 그룹(Codera Wine Group) 소속인 데릭 벤햄(Derek Benham)이 도급 부문을 인수하였습니다. 2001년에는 코데라가 블랙스톤 브랜드 및 도급 부문을 퍼시픽 와인 파트너스(Pacific Wine Partners), 컨스텔레이션 브랜드((Constellation Brands) 산하 부문)에 매각하였습니다. 그 이후 데릭 벤햄은 퍼플와인컴퍼니(Purple Wine Company)을 창설하였으며, 현재 소노마와인컴퍼니의 모회사입니다. 2003년 소노마와인컴퍼니가 퍼시픽 와인 파트너스로부터 그레이턴 생산 시설을 재매입한 이후, 소노마 카운티와 나파 카운티에 걸쳐 총 6개 시설로 확장하였습니다.

**Joe Joffe**

**해외 및 국내 자체 브랜드 부문 이사**

**707.829.6135**



*Northern California's  
Premier Custom Winery*